



제1장

개요 및 역사

1. 지리적 특성
이기석(서울대학교) · 최재현(건국대학교) · 이상일(서울대학교)

2. 역사와 문화
김덕현(경상대학교)

3. 일반적 현황과 성격
주성재(경희대학교)

1. 지리적 특성

1) 개관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하는 경상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일찍부터 ‘경상도’ 혹은 ‘영남’으로 구분되었던 동질성이 강한 지역이다. ‘경상’이란 지명은 고려 때 경상지역의 대표적 고을인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에서 유래한다.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 신비의 가야문화, 선비정신의 유교문화가 공존하면서 민족문화를 지켜왔던 경상지역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발전을 반영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지역은 동쪽으로는 태백산맥과 북서쪽으로는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하고 있어 대륙적 기후와 해양적 기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경상지역은 중앙부를 흐르는 낙동강의 수많은 지류를 따라서 농경이 발달하고 촌락이 형성되었다.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낙동강의 서쪽에서는 변한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진한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낙동강 유역을 따라 분포하던 촌락들은 고대 가야문화와 신라문화를 발달시킨 모태가 되었다. 낙동강 일대는 삼국시대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것이다.

낙동강은 경상지역 사회문화의 형성과 발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찍이 낙동강 유역의 소분지에 형성된 촌락들을 중심으로 하여 혈연적이고 지연적인 공동체가 발달하였고, 이들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전통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기반은 국가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전통과 문화가 토착화되면서 경상도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형성하였고, 문화와 학문이 조화를 이루면서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었다. 이렇듯 소분지에 형성된 촌락의 공동체 문화가 윤리와 학문으로 뿌리내리면서 생활 속에 이어져 내려왔던 곳이 바로 경상지역이었다.

수려한 산, 바다, 하천을 따라 전통문화를 형성하여 오면서 경상지역에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함께 하게 되었다. 지리산 자락의 전통 문화자원, 청정한 섬과 해안, 경주의 문화유적, 해인사의 대장경관 등은 이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에 해당한다. 곳곳에 널려 있는 문화와 관광자원은 민족문화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실체이며, 수 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청정 해역과 해안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 온 선조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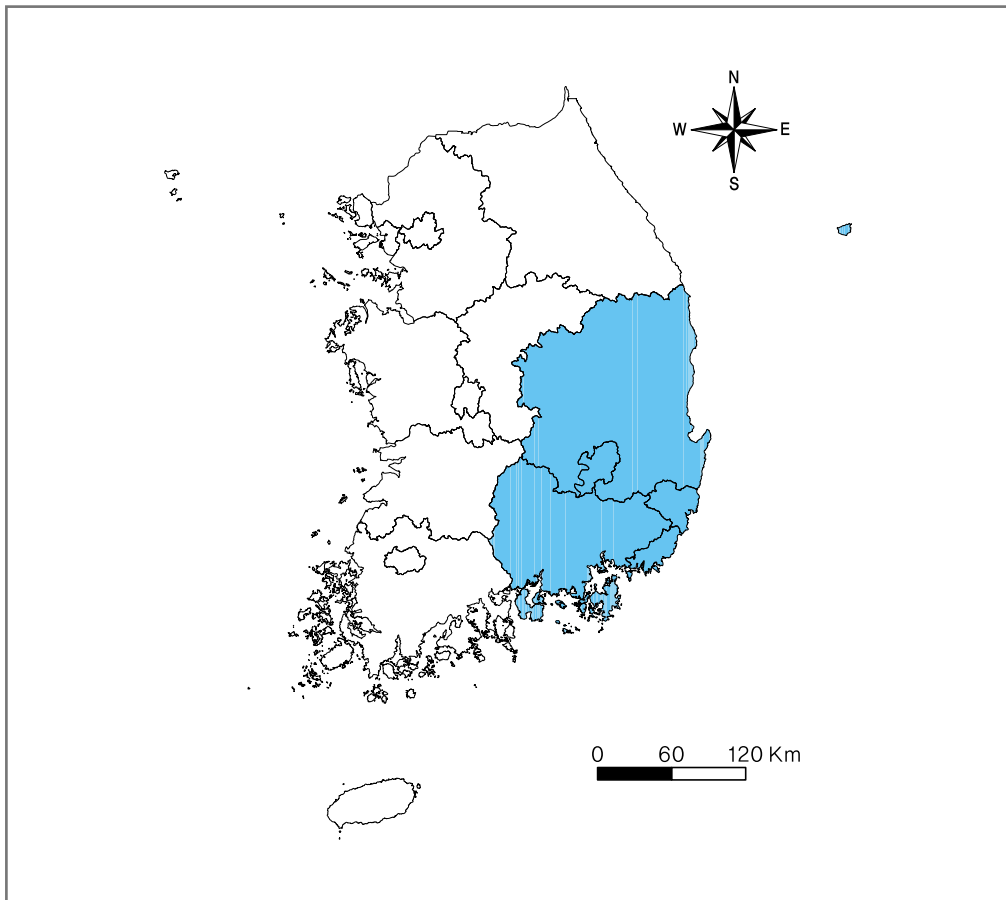
경상지역은 낙동강 유역을 따라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성장하게 되었고, 낙동강 지류와 해안가 포구를 중심으로 정주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인구가 3만 명이상이었던 도시(도읍)는 상주, 진주, 대구를 비롯하여 12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이미 인구의 계층성에 따른 정주체계가 나타났음을 반영한다. 1925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는 약 348만 명으로 전국의 17.8%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구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져 2005년 인구수는 1,311만 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공업도시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수의 증가를 보면 1949년에는 6개의 도시(부산, 대구, 마산, 진주, 포항, 김천)가 있었으나, 1963년에 그 수가 11개로 늘었고, 2005년 현재 도시 수는 23개로 증가하였다.

경상지역의 사회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최근에 제조업의 침체가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은 경상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경공업과 저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조립금속업과 장비제조업이 이 지역의 대표적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발전수준을 반영하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의 28%, 경제활동인구수는 27%, 총사업체의 종사자수는 2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비중이 전국의 28%인 점을 감안하면 경상지역은 우리나라 평균 정도의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으로 경제적 집중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평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상지역은 우리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발전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상지역에는 다양한 전통문화와 전문화된 산업이 발달하였고, 예로부터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21세기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경상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생산 및 유통의 핵심적 허브로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위치와 영역

경상지역은 우리나라의 동남부에 위치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및 태평양 연안과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을 갖는다. 즉,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이 교차하면서 대륙과 대양을 잇는 지역이 바로 경상지역이다. 위치상으로 동으로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가 극점에 해당하고, 서단은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남단은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그리고 북단은 울릉군 북면 관음도가 자리 잡고 있다(그림 1-1, 표 1-1). 남단과 북단 사이에 위도 상으로 약 3°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기온의 차이와 재배작물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1-1〉 경상지역의 위치

[표 1-1] 경상지역의 경위도상의 극지점

| 구분 | 극지점 | 극점 위치 |
|----|-------------|----------------|
| 동단 | 울릉군 울릉읍 독도 | 동경(E) 131° 52' |
| 서단 |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 동경(E) 127° 35' |
| 남단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 북위(N) 34° 29' |
| 북단 | 울릉군 북면 관음도 | 북위(N) 37° 33' |

출처 : 경상남도(<http://www.provin.gyeongnam.kr>)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yeongbuk.go.kr>).

경상지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와 접경하고 있으며, 면적은 32,250.62km²로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의 32.4%에 해당한다. 경상지역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멤피스, 일본의 도쿄와 나고야, 중국의 칭타오와 란저우, 이란의 테헤란, 그리스의 아테네, 포르투갈의 리스본 등이 있다.

경상지역은 전통적으로 관문의 기능이 강하였는데, 이러한 관문의 기능은 산업화를 통해 더욱 커져갔다. 경상지역에 자리한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창원, 구미 등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들로서, 이들 도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품과 제품이 각지로 유통됨에 따라서 경상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육상물류 및 환적 항만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다. 경상지역은 남해축을 따라서 전라도와 연결되고 다시 서쪽으로 더 나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이르며, 동쪽으로는 일본 및 태평양 연안과 이어진다. 또한, 경상지역은 광주, 대전, 서울을 통하여 중국 및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환황해권 무역에서 기중점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산, 대구, 강릉을 통하여 극동러시아와 연결되는 환동해권 경제적 교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무역항이며, 물동량에서는 세계 5위의 항구도시이기도 하다. 부산은 산업화를 통한 수출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때 산업 생산과 해상 운송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아시안게임, 월드컵, 부산국제영화제, APEC 등과 같은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면서 부산의 역할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부산으로부터 동북아시아(도쿄,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북경 등), 동남아시아(상해, 홍콩, 발리, 푸켓, 마닐라 등), 태평양 연안(괌)과 직접적인 국제항로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상 운송에 있어서는 전 세계와 거의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이 갖춘 국내외 교통망

체계에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면 세계적인 해상운송 및 물류의 핵심 기지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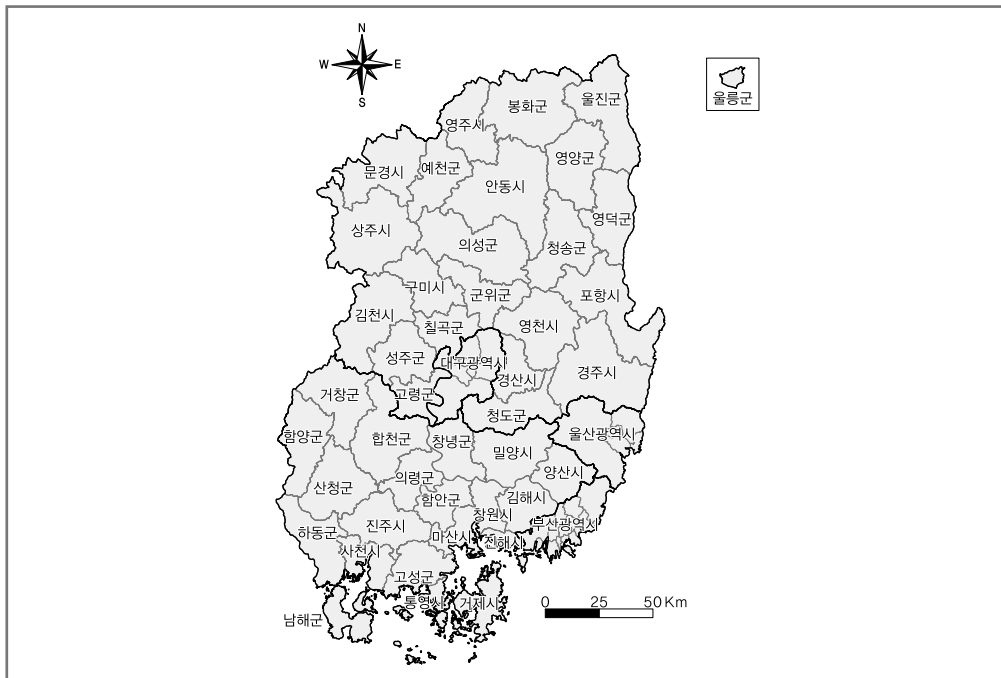
한편, 예전부터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대구와 산업화의 결과 탄생한 울산, 포항, 구미, 창원 등의 대표적 산업도시들은 육상물류 운송의 시발점과 종착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부산과 연계되어 동북아 물류의 핵심적 허브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의 발달에 힘입어 국제적 생산 및 기술교류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상지역은 토지이용에서 산지가 많아서 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59.6%), 농경지(18.2%), 대지(2.1%), 공공용지(0.9%), 그리고 공장용지(0.6%)의 순서로 나타난다(2003년 기준). 경상지역은 수도권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화를 주도해온 지역이지만, 도시적 토지이용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특색을 나타낸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 경상지역의 경제도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동시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시도되고 있는 첨단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 정보 집약적 서비스에 초점을 둔 구조적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경상지역의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상지역의 성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개발 계획은 부산권과 대구권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부산과 울산이 중심이 되는 부산권을 해양물류 및 지식기반 기계분야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권을 과학기술, 문화, 교육 중심지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발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경상지역의 미래는 매우 밝다.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져가는 현실적 여건에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아우르는 경상지역의 입지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의 허브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에 토착화된 연관된 산업들의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면 경상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경상지역은 동북아의 유통 허브의 기능과 전문화된 산업도시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한 육상교통망이 연결되고 유라시아로 향하는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경상지역은 중국 및 러시아로 육상유통에 대한 물류 기중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 가능하다.

3) 지방행정체제

경상지역의 인구증가를 보면 해방 후 해외동포의 귀환, 한국전쟁 중 피난민의 정착으로 인구의 자연적 증가보다 사회적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1960년대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경상지역의 인구성장은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공업도시인 울산, 마산, 포항, 구미 등을 중심으로 하여 빠른 인구성장을 경험하였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구역의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초기 단계인 1963년 경상북도의 지방행정체제는 5시 24군으로 구성되었으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2005년 현재 10시 13군으로 변화하였다(그림 1-2, 표 1-2). 같은 기간 동안 경상남도는 6시 20군에서 10시 10군으로 변화하였다. 행정구역의 변화는 경상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났지만, 특히 대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은 심한 행정구역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림 1-2〉 경상지역의 행정구역

부산은 오랫동안 동래(東萊)로 불렸고, 1910년 부산부(釜山府)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지금의 부산시가 되었다. 부산의 행정구역 변화를 인구성장과 관련시켜 알아보자. 1949년 부산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지만, 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1995년 381만 명에 도달한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의 행정구역은 몇 차례 바뀌게 되었다. 먼저,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인구성장으로 인해 부산의 인구가 1960년 116만 명에 달하게 되면서, 1963년에는 6구(중구, 서구, 동구, 영덕구, 부산진구, 동래구)와 7출장소를 가진 정부직할시로 승격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성장의 결과로 1989년 부산의 행정구역은 다시 12개 구를 갖는 행정체제로 바뀌었고, 1995년에는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15구 1군으로 변화하였다. 면적 면에서도 1910년대 약 84km²이었던 행정구역의 면적은 2004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서울보다 더 큰 763.3 km²의 면적으로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동래군, 김해군, 양산군, 창원군, 진해시의 일대가 부산에 편입되었다.

[표 1-2] 경상지역 행정구역 현황

| 행정구역 | 세부 행정구역 | |
|-------|---------|--|
| 부산광역시 | 구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
| | 군 | 기장군 |
| 대구광역시 | 구 | 북구, 남구, 중구, 동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 |
| | 군 | 달성군 |
| 울산광역시 | 구 | 북구, 중구, 남구, 동구 |
| | 군 | 울주군 |
| 경상북도 | 시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
| | 군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 경상남도 | 시 |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 | 군 |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출처 : 각 시·도 홈페이지.

대구광역시는 2005년 현재 7구 1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지역은 고려 초기 수성군, 대구현, 해안현으로 나뉘었고, 조선시대 세조 12년에 대구부로 승격되었다. 1914년 대구지역은 시가지 일대는 대구부로, 나머지 지역은 달성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49년에 와서 대구시로 개칭되었다. 한편, 대구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힘입어 1980년에 인구 160만 명을 넘어서면서, 1981년 달성군, 칠곡군, 경산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대구직할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달서구가 신설되었으며,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7구 1군(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가진 광역시로 승격되었다. 도시면적은 1963년 178.3km²이던 것에서 달성군이 편입됨에 따라 현재 885.7km²로 늘어나게 되었다.

울산은 조선 태종 때 울주가 울산군으로 개칭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지명으로 보인다. 조선 선조 31년에는 울산군이 울산도호부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에는 다시 울산도호부가 울산군으로 개칭되었다. 1931년에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62년에 울산공업지구의 지정과 함께 울산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경험하면서 1985년 중구와 남구로 분리되었고, 1997년 7월 15일 경상남도의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그리고 울주군을 포함하여 1,056.6km²의 면적에 약 10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현재 10시 13군에 총 33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도라는 행정구역은 고려 충숙왕 때인 1314년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경상북도라는 행정구역명은 조선 고종 33년인 1896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부, 군, 면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상북도는 1부 22군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49년에 행정체계가 개편되면서 3시(대구, 포항, 김천) 23군으로 이루어진 행정단위를 가지다가, 1980년까지 경주(1955년), 안동(1963년), 구미(1978년), 영주(1980년)가 시로 승격되면서 다시 행정구역이 변화하였다. 1981년에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경상북도는 7시 24군을 갖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시·군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경상북도는 10시 13군(총면적 19,025km²)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상남도가 지금의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1896년에 경상도에서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도청소재지는 진주였지만, 1925년에는 도청 소재지가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되었다. 1949년에 경상남도는 3시(부산시, 마산시, 진주시)와 19군을 갖는

현대적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 경상남도는 1963년에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6시(마산시, 진주시, 충무시, 진해시, 삼천포시, 울산시)와 20군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었다. 1983년에는 경상남도의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시로 옮겨 왔고, 창원(1980년)과 김해(1981년)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8시 19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995년 도농복합시가 설치되면서 다시 10시 11군으로 개편되었다. 경상남도는 1996년 양산군의 시 승격으로 시의 수가 11시로 늘었으나, 다시 1997년에 울산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분리로 10시 10군(314읍·면·동)으로 개편되었고, 총면적은 현재 10,518km²에 이르고 있다.

4) 지명

부산(釜山)의 지명 유래는 고려 공민왕 17년(1363년)에 “대마도에 백미 일천석(白米 一千石)을 부산포(釜山浦)에서 반출했다”는 기록에서 시작되는데, 부산이라는 지명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중기 이후의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부산이라는 이름은 동평현(東平懸)의 전신인 대증현(大甌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증현의 증(甌)은 부산의 부(釜)와 뜻이 서로 통하는 것으로 둘 다 떡을 찌거나(甌) 밥을 짓는(釜) 그릇을 의미한다고 한다. ‘대증’은 ‘큰 시루’란 뜻이어서 큰 시루를 얹어 놓은 모양과 흡사한 산 모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래군(東來群)의 ‘산천조(山川條)’에는 “부산은 동평현에 있는데 산이 가마솥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밑을 부산포라 한다”라는 기록이 있는 데, 이것이 부산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구(大邱)라는 명칭은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달불성(漣弗城), 달구벌(漣句伐), 달구화(漣句火) 등으로 불리던 지역이 대구(大丘)라 개칭된 것에 연원하는데, 조선 정조(1778년 경) 무렵부터 현대의 한자인 대구(大邱)로 고쳐 쓰게 되었다고 한다. 개칭 이전의 지명은 달구불 혹은 달구벌이라는 순수 우리말 지명에 대한 한자표기들인데, ‘불’과 ‘벌’은 모두 평지, 평야, 촌락, 성읍의 뜻으로 풀이 된다. 달구벌은 달벌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때 ‘달’의 뜻은 원(圓), 주(周) 등 넓은 공간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달구화 혹은 달구벌과 대구는 서로 같은 뜻이 된다.

울산(蔚山)이라는 명칭은 고려이래 울주(蔚州)라 불리던 것이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울산으로 개칭되면서 지금까지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지명 유래를 보면, 조선 태종때 현재 울주군 웅촌면(熊村面) 금단마을에 “우시산국(于尸山國)”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우시산국”의 시(尸)자 표기 발음이 “르”이어서 于(우)+尸(르)+山(산)으로 울산이 되었다고 한다.

경상북도는 삼한시대 진한(辰韓)에 속하던 지역이었고, 경상남도는 주로 변한(辯韓)에 속하면서 북부 일부 지역은 진한에 속하던 지역이었다. 경상북도가 주로 신라의 영토이었던 데 반해 경상남도는 대부분 가야문화권에 속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신라 진흥왕 24년(532년)에 가야가 신라에 병합됨으로써 마침내 현재의 경상권 전체가 하나의 지역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경덕왕 16년(757년)에 시행된 9주 5소경 체제에 따르면 현재의 경상지역은 상주(尙州), 양주(良洲), 강주(康州)가 포괄하던 지역에 해당된다. 그 후 고려 태조 때는 동남도(東南道) 도부서사(都部署使)를 두었고, 성종 14년(995년)에는 영남도(嶺南道), 영동도(嶺東道), 산남도(山南道)로 나누어졌다가 예종 원년(1106년) 경상진주도(慶尙晋州道)로 통합되었다. 또 명종 원년(1171년)에 다시 경상주도(慶尙州道)와 진협주도(晋陜州道)로 나누어졌다가 명종 16년(1186년)에는 다시 경상주도로 통합되었고, 신종 7년(1204년)에는 상진안동도(尙晋安東道)로 개칭되었는데 뒤에 다시 경상진안도(慶尙晋安道)로 변경되었다. 경상도란 명칭이 확정된 것은 충숙왕 원년(1314년)이었는데, 이는 경주(慶州)와 상주(尙州)의 첫 자를 따서 명명된 것으로 경상지역에서 경주와 상주가 당대에 가졌던 높은 중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태종 13년(1413년) 8도제가 실시되었을 때 경상도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년) 군사상 이유로 경상도를 낙동강을 경계로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였다. 그러던 것이, 고종 32년(1895년)에 지방관제를 개정할 때 도를 없애고 부(府)를 두었다가, 이듬해인 1896년 다시 부를 없애고 전국을 13도로 구분할 때 경상도를 남북으로 가르게 됨에 따라 오늘의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란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